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도자료

2025. 6.17.(화), 즉시배포

피해자 권리보장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수립

담당자 | 대외협력과장 고영호(02-2650-1081), 담당자 이훈(02-2650-1085)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첫 조사개시 선언

- 송기춘 위원장,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은 책임있게 협조해야”
- 41개 신청사건과 8개 직권조사 사건 등 총 49개 진상규명 조사개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17일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첫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위원회 신청사건 제1호인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등 41개 신청사건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사건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과제이다.
- 신청사건 제1호는 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위원회에 최초로 신청한 사건으로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 행적 △인파 밀집에 대한 예상 및 대책 현황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 참사의 주요 쟁점을 포괄한다.

※ 신청사건 조사과제

<주요 내용>

- ①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 ②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 ③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 ④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 ⑤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 ⑥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 ⑦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 ⑧ 피해자 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 ⑨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등 권리침해 사항

- 신청사건 41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서○○ 사건' 등 35건(내국인 31명, 외국인 4명)은 내·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신청한 개별 신청사건으로 △희생자의 이동 경로 △사고 지점 △구조 및 구급 과정 △사망 시간 및 지점 △참사 후 이송 과정 △변사사건 처리 과정 등이다.
- 특히 외국인 희생자 4명 희생사건의 경우 희생자 해당 국가 대사관과 한국 정부의 유가족에 대한 미흡했던 책임의 진상규명을 요청한 신청사건이다.
- '10·29이태원참사 구조참여자 나○○ 사건' 등 5건은 생존피해자·구조참여자·경제적 피해자 등이 신청한 개별 피해사건으로, 참사 이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사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인정 요청 등이다.
- 직권조사 8개 사건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수행하는 조사로서, 재난안전 및 피해자 권리보장 분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를 포함한 재난안전 관련 4개 사건은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 초점을 맞추었다.
- 더하여 '이태원참사 희생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 관련 4개 사건은 희생자 관리제도의 문제점·피해자 지원방안의 적정성·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직권사건 조사과제

직권사건	주요 내용
①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인파관리대책, 관련 안전 교육 및 홍보, 인프라 구축·운영 등
② 다중운집 안전관리 매뉴얼·훈련 등 재난 대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재난 대응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재난대비훈련 등
③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조사	재난 지휘·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
④ 국내·외 다중운집 인파 사고 및 안전관리 사례 조사	인파 사고 사례, 국내·외 재난 안전관리 선진 사례 조사 등
⑤ 이태원참사 희생자 구조·병원이송·가족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재난 희생자 관련 사망신고 제도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등
⑥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침해 실태 및 구제 방안 조사	심리적·경제적·법적·사회적 피해 및 외국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안 등
⑦ 국가의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조사	정부·지자체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 분석, 국내·외 사례, 지원체계 방안 등
⑧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추모 방안 조사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조형물 조성, 추모행사제도의 필요성 등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송기춘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위원 소개 및 인사,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 활동은 책임소재규명을 넘어 미래 안전과 자유,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모든 국가기관은 책임있게 응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는 유가족들이 방청인으로 참석하였다. 송기춘 위원장은 의사진행 중 발언권을 부여하여 유가족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표로 발언한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의 조사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

[요청사항]

※ 희생자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기사 작성 시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댓글창을 비활성화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송기춘 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10·29이태원참사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지 9개월만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사개시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픔과 슬픔을 견디며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활동 개시를 기다렸을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활동은 단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소재 규명 정도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기반을 튼튼히 하려 합니다.

강제적인 권한이 적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양심적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사의 목격자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의식과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모든 구성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족 등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들의 아픔이 잘 치유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